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해방 이후 한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수출이 있었다
- 노 대통령, 대기업 노조에 기득권 포기 요구

경영 노트

- 잭 웰치의 경영 철학: “비즈니스의 4원칙”

정치 현안

- 대통령 및 정치 현안 여론조사

사회 트렌드

- 옥스퍼드 사전에 실린 새 단어들
- 우리 국민 7명 중 1명이 소득 빈곤층

저널 브리프

- ‘Super Spike’ 가능성과 미국의 高달러 전략

洗心錄

- 선시어외(先始於隗)의 故事

□ 해방 이후 한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 수출이 있었다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2004년 국내총생산(GDP)은 6,801억 달러로 세계 11위, 교역 규모는 4,783억 달러로 세계 12위의 위상을 기록함
 - 이와 같이 한국 경제가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46년 1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 규모가 60년 만인 2004년에 2,538억 달러로 급증하는 등 수출이 경제 성장의 중심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그러나 양적인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對日 무역 역조 개선, 서비스 부문의 수출 확대,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적인 추진 등의 보완 전략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1946년 이후 對日 무역 수지 적자 누적액은 2,318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무역 적자의 절반 이상이 부품·소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국내 관련 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노 대통령, 대기업 노조에 기득권 포기 요구

-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경제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사회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등과 분열이 확산되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함
- 노 대통령은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해서는 급격한 경기 변동의 폐해를 지적하고 『先 경제 안정, 後 경제 활력 증진』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단기 경기 부양책이 배제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경제 전체의 내수 기반 확충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국내 투자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한편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가지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함

□ 잭 웰치의 경영 철학: “비즈니스의 4원칙”

- (개요) GE의 전임회장 잭 웰치는 최근 「위대한 승리(Winning)」라는 저서를 통해 평소 자신이 생각해 오던 경영철학을 “비즈니스의 4원칙”으로 제시함
- (원칙 1) 기업의 사명은 단순한 구색 맞춤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성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되어야 함
 - 이러한 사명 달성을 위해서는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함. 다시 말해서 사명과 이에 맞는 가치 창조가 상호보완이 될 때 기업은 성공할 수 있음
- (원칙 2) 경영자는 조직의 ‘정직성’ 확보에 집중·노력해야 함
 - 조직에 정직성이 결여되면 구성원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솔한 비판과 비평이 자제되기 때문임
- (원칙 3) 능력주의에 기초한 차별적인 자원 배분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함
 - 승리하는 리더는 자본회수율이 높은 대상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분함
 - 그 대상에는 사업 영역, 제품 라인, 그리고 임직원들의 보상도 포함됨
- (원칙 4) 경영자는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함
 - 거대 관료주의 기업에서는 경직된 분위기로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언이 어렵기 때문임
- (시사점) “비즈니스의 4원칙”은 기업의 지속적이면서 건전한 성장 방법을 제시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유망한 분야에 계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능력 확보가 필요(원칙 1, 3)
 -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조직 내 원활하면서도 정직한 커뮤니케이션 확보가 요청(원칙 2, 4)

□ 대통령 및 정치 현안 여론조사

- 지난 15일 KBS가 실시한 광복 60주년 기념 여론조사에 의하면, 2007년 차기 대통령감 1위는 고건(25.6%)인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는 박근혜(13.2%), 이명박(13.1%)이 2위 그룹을 형성했고, 다음으로는 이회창(7.8%), 정동영(4.8%)의 순이었음
 - 역대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는 절반 이상인 55.2%가 박정희 대통령을 꼽았고, 다음으로 김대중(17.2%), 이승만(2.5%), 전두환(2.0%), 윤보선(1.1%), 김영삼(0.6%) 대통령 순이었음

-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연정과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 구도 타파에 도움을 주는가라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율이 58.9%로서, ‘도움이 될 것’(26.2%)의 두 배 이상이었음
 - 도청 테이프 내용 공개에 대해서는 ‘완전 공개’(41.7%) 비율이 가장 많았고, ‘불법 행위만 공개’ 33.4%, ‘공개 반대’ 19.2%의 분포를 보임

-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우리 국민 10명중 3명에도 못 미쳐, 지난 4월 재보선 이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임
 - ‘잘하고 있다’ 29.7%, ‘잘못하고 있다’ 63.4%, ‘무응답’ 6.9%
 -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32.8%)이 열린우리당(23.6%)을 9%p 정도 앞서고 있음. 다음으로 민노당(12.3%), 민주당(4.6%), 자민련(0.5%)의 순임

-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는 경제 발전(58.9%), 정치 개혁(11.7%), 남북관계(6.8%), 비리 척결(5.0%), 복지 증진(4.5%)의 순이었음
 - 국민 화합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빈부 격차 해소(58.5%)를 꼽았고, 지역주의(20.6%), 이념 갈등(7.3%), 세대갈등 해소(6.3%), 남녀차별(3.1%) 순이었음

- 가장 친근한 국가로는 미국(27.9%), 북한(24.5%), 유럽연합(10.4%), 중국(8.9%)의 순. 다만 2, 30대는 북한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56.6%), 중국(21.5%), 북한(7.3%), 일본(3.2%), 유럽연합(2.5%)의 순

□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린 새 단어들

- 8월 10일 발간된 옥스퍼드 영어사전 2판 개정판에 새로 수록된 유행어들을 보면, 새로운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

- 처거(chugger): 거리에서 행인에게 접근해 자선금을 모으는 사람. 자선을 의미하는 charity와 노상강도를 의미하는 mugger의 합성어
- 차브(chav): 운동복을 입고 싸구려 금붙이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며 버릇 없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하층 젊은이들을 폄훼해 부르는 말. 루마니아 집시 언어에서 어린이를 뜻하는 ‘차비’(chavi)에서 유래

- 피싱(fishing) 등 신 정보기술 용어도 포함됨

- 피싱(fishing): 유명회사에서 e메일을 보낸 것처럼 가장해 수신자가 신용 정보를 노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1996년 해커들이 AOL(America Online, Inc.; 美 인터넷업체)의 계정을 훔치려고 사용한 수법에서 시작됐음

□ 우리 국민 7명 중 1명이 소득 빈곤층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최저 생계비 수준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득 빈곤층’이 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2003년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01만 9,000 원)의 120%에 못 미치는 소득 빈곤층이 716만 명으로 잠정 집계
- 이는 국내 전체 인구 4,900만 명의 14.6%로서, 국민 7명 중 1명이 ‘소득 빈곤층’인 셈인데, 이는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양극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716만 ‘소득 빈곤층’의 구성을 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 계층은 138만 명에 불과하고,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인데도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계층이 무려 372만 명에 이룸(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 계층은 206만 명)

- 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은 낮으나 재산이 많은 가구도 빈곤층에 포함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추산한 ‘최악의 빈곤층’은 401만 명으로 집계됨
-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완성되는 대로 사회 양극화 완화와 사회 안전망 개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 함

□ ‘Super Spike’ 가능성과 미국의 高달러 전략*

- 국제유가가 향후 100달러대 진입 즉 ‘Super Spike’ 국면에 진입하는가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高달러 정책으로 고유가 부담을 원유수입국에 전가시킴과 동시에 급성장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을 견제함으로써 미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려하고 있어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달러 강세 원인) 최근의 달러 강세는 미국의 경제 기초 여건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견실하며,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나, 이면에는 미국의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있음
 - 쌍둥이 적자로 고유가에 따른 정책입지가 좁아진 미국은 달러 강세를 통해 고유가 부담을 원유수입국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 또 미국은 위안화 평가절상과 시장개방 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쌍둥이 적자의 주범인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에게 고유가 부담을 집중시키고 있음
 - 특히 미국은 당면한 쌍둥이 적자 해결과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 견제를 통해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함
- (원유수입국 국민의 고통 가중) 전통적으로 유가가 상승할 경우 달러는 약세를 보여 고유가에 대한 충격을 달러 약세가 보완하는 이른바 대체 관계가 작용했으나, 최근에는 고유가와 달러가치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원유수입국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2005년까지 유가가 50달러를 넘는 고공행진을 보였어도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한국 내 체감경기는 크게 악화되지 않았음
 - 그러나 최근 고유가와 달러강세의 동반 현상으로 중국, 한국 등 아시아 원유수입국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유가가 10달러 상승하면 신경제고통지수(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는 미국 1.3p, 중국 2.3p, 한국 3.0p 각각 상승하여, 원유수입국일수록 유가 상승에 따르는 국민의 고통은 가중됨
- (대응 방안) 2005년 8월 들어 주요 예측기관들이 국제유가가 ‘Super Spike’ 즉 100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정책 당국은 외환정책과 세제정책을 통한 원유도입단가와 최종소비자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고유가 부담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피해야할 것임

* 이 글은 『한경비즈니스』(2005.8.22)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선시어외(先始於隗)의 故事

<史記>에 나오는 선시어외(先始於隗)란 고사성어가 있다. 풀이하면 “곽외부터 기용하다”는 뜻으로서, 구하려는 것을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가까이 있는 자부터 구하여 시작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재를 구하는 전략에 대한 깊은 뜻이 숨어있다.

전국시대(B.C.403~B.C.221) 연나라는 제나라와의 싸움에서 대패하고 왕은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 소왕이 등극한다. 소왕은 사방팔방으로 인재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때 곽외라는 선비가 찾아온다. 그는 고사를 예로 왕에게 충고한다.

“옛날 어느 왕이 천금을 걸고 천리마를 사려고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천리마를 구하는 일을 하겠다고 자청하는 사람이 나섰고 왕은 그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야 겨우 천리마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말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은 말의 뼈를 5백 금에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왕은 크게 노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말이거늘, 어찌 죽은 말의 뼈를 사가지고 돌아왔느냐? 5백 금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러자 그 사나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노여움을 푸십시오. 죽은 말을 5백 금이나 주고 샀다는 소문이 퍼지면 사람들은 임금께서 진심으로 좋은 말을 아끼시는 군주로 믿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천리마가 사방에서 모여들 것입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1년도 못되어 천리마가 세 마리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옛이야기를 말한 후 곽외는 “왕께서 진심으로 인재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이 사람 곽외부터 기용하십시오(先始於隗). **재주가 없는 곽외도 왕의 후대와 신임을 얻었다고 하면 저보다 더 훌륭한 인재들이 모두 왕께 의지하러 올 것입니다.**” 소왕은 곽외를 스승으로 삼는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정말 천하의 인재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조나라에서는 명장 악의(樂毅)와 극신(劇辛)이, 주나라에서는 소대(蘇代)가, 제나라에서는 추연(鄒衍)이, 위나라에서는 굴경(屈景)이 연나라로 속속 모여들었다.

“성취는 대체로 열망과 기대를 점차적으로 높인 결과다.”

잭 니콜라우스(1940~) : 美 프로골퍼